

공감각으로서의 소통은 단일 감각으로서의 소통보다 크고 광대하다. 미술 작가여서 그런지, 나는 주로 청각적 영역이 시각적 영역과 결합하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나에게 소리가 다가왔을 때, 나는 청각적 신경 계통의 직접적인 반응 외에 시각적 계통의 신경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이 신경계의 반응은 실제 감각적 경험과는 상관없는 어떤 연상 작용일 수도 있겠다.

최근 외할머니와의 사별 후 나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가까운 증상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이후 '청능사'라는 직업군이 있다는 것, 그들의 치료는 잇몸에 맞춘 틀니처럼 귓구멍에 맞는 마개를 만들어 소리를 차단해 준다는 것,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다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증후군을 작업에 밀착시켜, 할머니의 부재에 주파수를 맞추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색채, 공간 감각으로 환원했다.

나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청각적 자극이 편집을 거치지 않고 물려오는 현상, 이 현상이 육체적 감각과 감정을 거쳐 시각이나 색채로 환원되는 색채 공감각, 혹은 색청(colored hearing)을 지독하게 느꼈는데, 나의 감각적 경험들이 어떤 작용을 하건 간에 최후에 안착되는 곳이 색채와 형상인 것에 놀랐다. 그래서 감각의 받아쓰기를 하듯 색채를 받아썼고, 어떤 소리가 어떤 색을 불러오는가에 대해 느끼려고 애썼다.

사실 청각적 경험은 이미지를 동반하지 않는다. 우리의 감각 중에 청각만큼 비구상적이며 시간적이고 비물질적인 것도 없다. 그러나 청각은 공감각적인 작용을 통해 이미지로 구체화되는 예가 많다. 나는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일어났던 개인적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청각의 육체화, 시각화, 색채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감각이 '사라진 할머니'라는 매체를 통과하자 죽음은 알록달록해졌고, 명랑해졌으며 할머니의 반질고리처럼 다채로워졌다. 할머니와 내가 쇠뿔크와 칸딘스키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부재하는 무조의 음악과 할머니와 내가 존재했던 기억의 소리들은 하나의 매체가 되어 나의 색채들을 이끌어냈다.

할머니는 죽음으로서 광대한 나의 매체가 되었다. 다른 한쪽이 발전하면 다른 한 쪽을 구속하고, 마취하는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매체들과 달리, 우리는 '부재'라는 투명한 인터페이스를 사이에 두고 상호 작용하게 되었다. 할머니 매체에 의해 나는 부재에 폐쇄적이지 않은, 부재와의 공유의 경험 속에서 이 감각의 영역을 저 감각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의 시간들이 아마 나라는 인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 '할머니 매체와의 공감각적 청취와 시각적 전이'를 통해 부재와의 생생한 '목적 소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부재와의 소통도 생생한 미술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